

# 禪筆로 담아낸 '心外無法'의 경구들

## 서예가 청우 윤상민 '마음전' 초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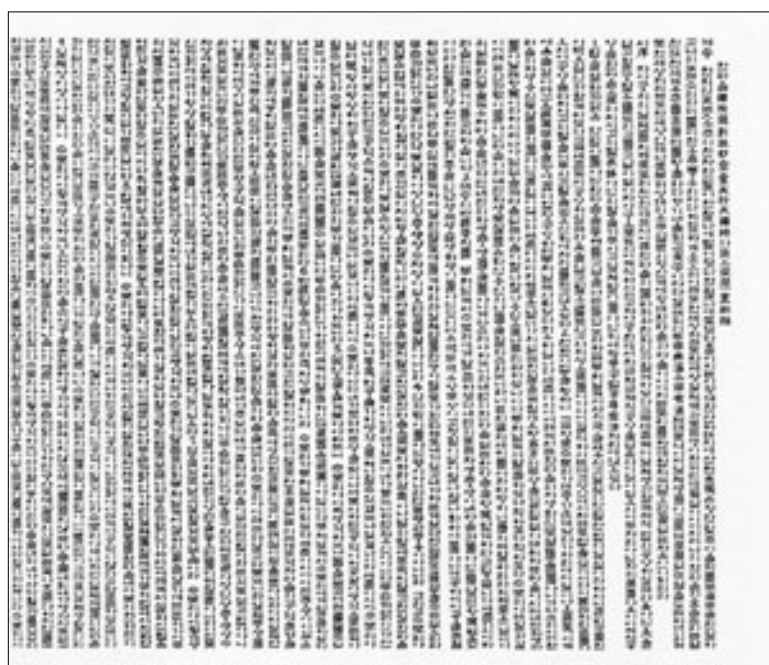
텔 로비 갤러리에서 열린다. '마음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대행선사 범어와 불교·유교·도교 경전의 마음 관련 명구(名句)를 담은 47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이번 작품 중 백미는 대행 선사가 한문 금강경을 한글로 쉽게 뜻으로 풀어 놓은 1만3천165자를 한지에 쓴 10폭 병풍(70cm

블룸비스타서 6월 30일까지 대행선사 범어·유교 경전 등 마음 수행 관련 명구들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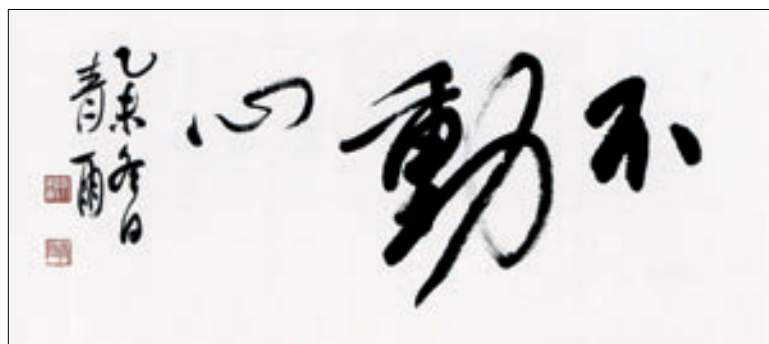
"禪과 線은 둘이 아니다" 화두 서예 통해 심신의 장에 이겨내 마음수행 기반한 墨筆 '독창적'

소년은 어릴 적부터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몸을 치유하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고, 소년에게 시련만을 안겼다. 그런 그를 지탱한 것은 대행 선사(1927-2012)의 마음수행이었다. 장애로 인한 차별로 삼수 끝에 대학에 입학한 그는 모교 동국대에서 서예를 만났다. 자신의 한을 달래듯 수행과 서예에 매진했다. '선(禪)과 선(線)은 둘이 아니다'라는 화두를 일념으로 매진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 일련의 인생사에서 나타나듯 불자 서예가 청우 윤상민(61·사진)의 작품 세계에는 '마음'에 대한 성찰과 '서예'에 대한 애정이 오롯이 담겨있다. '마음'과 '서예'가 만나는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 초대 전시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기 양평 블룸비스타 호

×135cm×10)이다. 작품을 완성하는 데만 2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대작이다. "2달여 동안 하루 종일 혼신을 다해 썼습니다. 그럼에도 오·탈자가 나왔어요. 글씨가 마음에 안든 경우도 있었습니니다. 붓째로 3번을 쓰고 엮고 했지만, 완성되고 나니 그 화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윤상민 서예가의 작품 '대행 선사의 뜻으로 쓴 금강경(70cm×135cm×10)' 중 일부. 1만 3천여 자가 담긴 10폭 병풍의 전면쪽은 전시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심'(53cm×25cm)은 얼마나 남지 않은 먹을 묻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작품으로 작가가 가진 묵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서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은 "1만 3천자가 넘는 대작인 대행 선사의 '뜻으로 쓴 금강경'을 대하고 보니 그 노력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저절로 마음이 모아진다"고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상민 서예가는 선사 범어, <금강경> <논어> <맹자> <명심보감> <채근담> <노자> 등에서 마음 관련 명구들을 선별해 필묵으로 담아냈다. 사용한 서체들도 다양하다. 한문의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와 한글의 궁체·관본체(정음체), 그리고 전각까지 그 스펙트럼이 광대하다. 특히 작가를 유명 국전 작가 반열에 오르게 한 행서와 초서, 40년 동안 매진해 이뤄진 특유의 관본체 작품들도 눈여겨 볼만 하다. 이중 '부동심'(53cm×25cm)은 얼마나 남지 않은 먹을 묻혀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작품으로 작가가 가진 묵필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선주선 원광대 서예과 교수는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조형대로 필력은 필력대로 새 경지를 이뤘다"면서 "한문서에도 일격(一格)이지만 특히 정음체 한글 글씨는 단연 독창적인 면목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교수는 "필획의 유연과 질감(疾澁, 매끄러운 획과 까칠한 획)은 먹이 춤을 추듯 하고 유동미의 흐름도 뛰어난

뿐 아니라 결구(글자의 짜임)와 장법(작품의 짜임) 또한 자유자재하게 구연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윤상민 서예가는 대중들이 마음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으면 한다는 바람과 기대를 내비쳤다. "저에게는 붓을 잡는 일도 수행의 길입니다. '수행자는 그때그때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할 뿐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결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대행 선사의 범어를 늘 가슴 깊이 새기며 작품에 임합니다. 많은 대중들도 이번 전시회의 대행 선사의 범어 등을 통해 '깊고 간절한 한 마음이 닿지 못한 것이 없음'을 알았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윤상민 서예가는 "대행 선사의 범어만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통해 40년 작가 인생을 회향할 것"이라는 원력을 밝혔다. "잘 나가는 은행을 접고 전업 서예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주변은 만류했지만 오직 대행 선사님만이 '그래, 잘못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힘을 믿고 여기까지 작품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청우(靑雨)라는 별명 겸 호도 스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 제 작품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작가 인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031)770-8812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찬불가 사랑한다면 실력을 보여주세요

### BTN·풍경소리, 찬불가 대회

좋은 벗 풍경소리와 BTN 불교 TV는 공동으로 불기 2560(201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찬불가 열창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찬불가 열창대회는 예선(4월 24일)과 본선(5월 19일)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 모두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독창과 8인 이하 중창까지 가능하다. 참가곡은 찬불가, 찬불가요이며, 대중가요 개사는 금지된다. 반주는 출연자가 동반하며, MR 반주도 가능하다. 신청은 '좋은 벗 풍경소리'와 '붓다콘서트 카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4월 16일까지. (02)723-9836 신성민 기자

## 클래식·짓소리 '콜라보' 마음 울리네

### 성담 스님·임현정 피아니스트 '어둠에서 빛으로' 콘서트

### 4월 8일 부산 영화의 전당서 피아노 선율·짓소리 울림 만남

클래식과 범패 짓소리의 콜라보레이션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파워풀한 연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임현정 피아니스트와 성담 스님의 합동 프로젝트 콘서트 '어둠에서 빛으로'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4월 8일 오후 7시30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된다. 성담 스님과 임현정의 콜라보 프로젝트 콘서트는 해외에서는 이미 'The Pianist and The Sage'이라는 타이틀의 연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연주 형식이다. 임현정의 피아노 연주 곡 사이마다 성담 스님의 범패 짓소리가 더해지는 혁신적인 형태의 연주다. 범패 짓소리는 사찰에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소리로 안채비들이 부르는 안채비 소리, 갈채비들이 부르는 홀소리·짓소리·화청(和淸)이 있는데, 이 중 짓소리는 홀소리를 모두 배워야 가능하다. 이번 연주는 음악과 영성에 대한 내용의 짓는 소리가 하나의 음악이 되어 피아노와 어우러져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2015년 더블린 피아노 페스티벌에 초청돼 연주된 바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지구환경을 위한 'COP21 24시간 명상프로젝트' 행사에도 상연해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실제 현지언론은 "성담 스님과 임현정의 연주는 동서양 최고의 만남, 음악의 조화를 이뤘다"는 찬사를 쏟아냈다. 임현정은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8번'을 비롯해 라흐마니노프의 '프렐류드', 바그너 오페라 '트리스타와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 라벨의 '소나티네 Op.40', 쇼팽의 '에튀드 Op.25 No.1' 등을 연주한다. 여기에 성담 스님은 '빛은 어디에나', '해탈' 등 짓소리로 공연의 깊이를 더한다. 공연을 주최한 행복기술원은 "이번 연주는 단순히 음악과 종교와의 만남을 넘어 인간과 세계 그리고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든 것, 고민과 번뇌에 대한 여정을 보여준다"고 기대했다. 한편, 공연 예매는 인터파크(1544-1555)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 따뜻한 봄, 당신이 생각났어요

### 경륜 스님, 서울·구미서 '착한 전시회'

### 아이들과 생활하며 느낀 감성 귀여운 동자승 작품으로 화현

누군가 그랬다. '동심(童心)이 곧 불심(佛心)'이라고.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을 바라보면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연꽃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하는 경륜 스님은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옮긴다. 일종의 그림일기다. 그래서 경륜 스님의 그림에는 항상 웃고 있는 천진한 동자승이 화제(畫題)다. 아이의 영동하면서도 즐거운 생각을 그림으로 담아낸 경륜 스님의 전시회가 따뜻한 봄, 다시 대중을 찾는다. 2014년에 이은 다섯 번째 전시회로, "좋은 생각이 있어, 니 생각"이 이번 전시회를 관통하는 주제다.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9-16일에는 구미 여정아트 갤러리에서, 4월 26-27일에는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경륜 스님은 "우리 연꽃동자들의 생각은 날마다 착한 생각, 맑은 생각, 바다는 맑은 생각뿐이다"면서 "함께 지낸 연꽃동자들의 영동한 에피소드들을 그림에 담았다. 많은 분들 와서 봐주고 '좋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054)456-3100, (02)541-3111 신성민 기자

###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염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범어, 신년범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 바쁜 하루... 삭발할 때 상처없이 밀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 머리결이 강해 고생하는데... 스님! 削髮면도 힘드셨죠!

이젠 안심하십시오! 스님 삭발전용 비누가 있습니다

## 스님 삭발용 편백비누 削髮快

편백원목오일 조정광천수 함유  
부드러운 삭발 두피손상방지 피부자극최소화

■ 구입 문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61  
☎ 043)296-7776 | 010-3280-7776